

목에 타이어에 걸고 살던 사슴 구조



▲ 사진=콜로라도주 공원 및 야생동물보호국(CPW)

타이어가 목에 걸린 채 숲속을 배회하던 사슴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미국 콜로라도주 공원 및 야생동물보호국(CPW)은 지난 9일 콜로라도주의 한 사유지에서 일명 '타이어 사슴'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첫 발견 후 2년여 만이다.

CPW는 타이어 제거를 위해 마취총을 쏘 사슴을 진정시키고 구조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슴팔도 절단했다. CPW 스콧 머독 경관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타이어 내부가 젖은 슬릿과 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사슴 목과 타이어 사이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타이어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뒀다. 뼈를 절단해서라도 어떻게든 타이어를 떼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사슴은 2년 넘게 타이어를 목에 달고 콜로라도주 파크 카운티와 제퍼슨 카운티 일대를 돌아다녔다. 2019년 7월 산양 개체 수 조사에 나선 CPW 관리 한 명이 처음 '타이어 사슴'을 발견했다. CPW 측은 사슴이 나타날 때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번번이 사슴을 놓쳐 구조에 애를 먹었다. 사슴이 자랄수록 타이어도 점점 더 사슴의 목을 쥘 것이 분명했기에, 구조당국은 발을 동동 굴렀다.

우여곡절 끝에 CPW는 지난 9일 가을철 번식기를 맞아 모습을 드러낸 '타이어 사슴'을 포획하는데 성공했다. 사슴은 4살 반 정도 된 수컷으로, 몸무게는 272kg 정도로 확인됐다.

남편이 키우는 고가 관상어 기름에 튀긴 여성

남편이 키우는 고가의 관상어를 기름에 튀겨 요리로 만들어 버린 여성이 화제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여성 마야 쿠르니아완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생선 요리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그 생선은 남편이 애주중지 키우던 고가의 관상어인 아로와나였다.

쿠르니아완은 남편의 관상어를 튀김 요리한 이유에 대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어항을 청소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청소를 계속해서 미뤄 결국 내가 청소하게 됐는데 아로와나는 이미 상당히 허약해져 있었다."면서 "아로와나가 죽어버리면 아까워서 죽기 전에 요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아로와나는 키우기가 까다로운 관상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 끝부분에서 쿠르니아완은 잘 튀겨진 아로와나 튀김을 앞에 두고 "자! 아로와나를 튀겨버렸다. 요리가 끝났으니 곧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 사진=SUARA.COM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내 남편도 어항을 청소하지 않아서 아로와나가 죽은 적 있다.", "와!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확실히 속으로 울었을 것", "이런 값비싼 생선을 먹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분명히 이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한 네티즌도 있었다. 하지만 쿠르니아완은 나중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남편은 처음에 슬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 농담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로와나의 가격은 최소 수백 불에서 수천 불에 이르며 희귀한 종의 경우는 수만 불 이상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근 첫날 근무 중 사망한 20대 경찰

미국의 한 경찰이 경찰로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지아주의 경찰관 딜런 해리슨(26)은 지난 8일 윌러카운티의 알라모 경찰서에서 파트타임 경찰관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해리슨은 이날 밤, 한 남성의 교통위반을 목격 후 운전자에게 접근했다. 운전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며 해리슨과 잠시 마찰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흐른 9일 새벽, 경찰서 앞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에 맞은 사람은 경찰 해리슨이었다. 해리슨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조지아주 경찰은 즉시 1만 7,500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용의자를 수배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10일, 해리슨이 살해된 현장에서 불과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 데미안 앤서니 퍼거슨(43)을 체포했다.

당시 조지아주 경찰은 용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체포를 위해 SWAT(강력 범죄에 대응해 만들어진 경찰 소속의 특수부서)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리슨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살해 표적의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8일 밤 있었던 교통위반 운전자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리슨의 유가족으로는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twitter(DurwoodyPolice)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